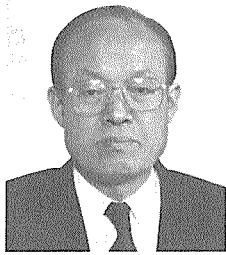


# 산·학 협동 활성화 위한 노력 구체화



이 상 설  
대한전자공학회 회장

1958년 대학3학년에 올라와서 수강신청을 마친 후 주임 교수님께서 강의실에 오셨다. “통신공학 수강자가 너무 적어서 폐강될 형편이다.

이 과목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매우 유익한 과목이고 담당하시는 교수님을 생각해서라도 수강신청을 정정해서 설강되도록 해주기 바란다.” 주임교수의 말씀에 따라 몇 학생들이 수강신청을 정정해서 강의가 개설될 수 있었다.

그 때 형편으로는 소위 약전(전자공학)을 하면 청계천에 가서 라디오방 차리는 게 고작이라 생각하던 시절이었다.

61년 한국전력에 취직해서 첫째, 둘째 달 월급은 부모님과 집안 어른들 선물을

사는데 다 쓰고 셋째달 월급을 받아서 3개월 월부로 금성사제 트랜지스터 라디오를 사 들고 시골집에 갔다. 그 마을에서는 두 번째 들여온 라디오였다. 마루기둥에 매달아 놓고 크게 틀면 이웃집 아이들이 문밖에 모여 그 소리를 들었다.

금년 우리나라 수출고가 1000억불을 넘어섰다. 동시에 전자산업의 수출도 440억불을 넘어섰다.

전자공학회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면서 수출 500억불은 매우 뜻깊은 수치다. 앞으로 50년 뒤 우리의 전자산업이 어느 위치에 갈 것인가를 생각하게 된다.

20여년전 프랑스에서 오신 여동찬 신부께서 동아일보에 게재하신 글이 생각난다.

“한국민족은 동양에서 가장 뛰어난 재능을 타고난 민족이다.” 삼성전자 온양공장 공장장의 말에 의하면 반도체 산업에 있어서 불량률이 세계에서 최저수준을 유지한다고 한다.

얼마전 독일의 한 학자는 가까운 장래에 한국은 과학기술 응용력에 있어서 세계 3위권에 들어가리라고 예측하였다. 실로 우리앞에 많은 가능성이 있음을 실감한다.

미국에 가서 공부한 어느 경제학자가 60년대 “우리민족은 너무 가진 것이 없다”고 한탄하던 생각이 난다.

우리에게는 넓은 땅도 없고 자원도 없다. 국토가 작기도 하지만 세계적으로 내놓을 만한 자원이 한가지도 없다.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이 있기는 하지만 세계 도처에 석회석이 널려 있어서 희소가치가 없다.

대륙붕에서 기름을 찾아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썼지만 허사로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다. 남이 갖지 못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밤잠 자지 않고 일하는 근면성과 세계에서 제일가는 손재주와 향학열에 불타는 젊은 청년들을 주셨다.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자”는 외침과 “하면 된다”는 신념으로 달리기를 시작해서 어언 30년! 이제 수출 1000억불을 달성했다. 라인강의 기적을 능가하는 한강의 기적을 이룩한 것이다.

한편에서는 걱정의 소리도 드높다.

대기업에만 치중되는 수출 양극화 현상을 우려하기도 한다. 조립공정 산업에 불과하다고 우리의 산업구조를 헐뜯는 이도 있다. OEM 방식 수준에 치중하고 있으니 장래성이 없다고 비판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리라고 믿는다. 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밤잠 자지 않고 동분서주하는 기업총수, 눈을 부릅뜨고 있는 최고경영자들, 살아남기 위해 처절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이 있는 한, 그리고 뛰어난 재능으로 묵묵히 산업현장에서 성실하게 일만 하는 수많은 근로자가 있는 한 우리는 세계무대에서 계속 뻗어가리라 확신한다.

앨빈 토플러는 「권력이동」에서 미래 사회는 지식이 지배하리라고 주장한다. 전자산업은 최고의 과학지식집약산업이다.

우리의 경제발전을 위해서 전자산업의 비중은 날로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창립 50주년을 맞이하는 전자공학회의 사명이 더욱 막중함을 느낀다.

전기·전자관련분야의 여러학회가 공동으로 영문논문지를 발간하게 되도록 발전시켜야 하겠다. 지난해 369편의 논문이 게재발간되었지만 새해에는 더많은 논문이 발표되도록 해야겠다.

ITC, APCAS, MDMC 등 국제학술회의도 잘 준비해서 우리의 학문 수준을 세계에 널리 알려야 하겠다. 학회회관 건립기금도 마련하여 앞으로 50년 학회발전의 기초를 마련해야 하겠다.

산학협동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해야 하겠다. 변화하는 시대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는 인재를 기르기 위해서 전자공학교육 개선책도 내놓아야 하겠다.

그동안 학회발전을 위해서 도와주신 학계·관계·업계·여러분들께 감사한다. 50주년을 맞이하여 전자공학회는 100주년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추춧돌을 놓으려 한다. 1만 6,000명의 회원 모두가 힘을 모아 우리 학회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매진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

또한 그동안 도와주신 각계의 여러분들께 끊임없는 성원을 부탁드린다.